

‘편의점 샷별이’ 지창욱x김유정, 골목길 강렬 첫만남

오는 19일 첫 방송 SBS 새 금토드라마

편의점 무대에 예측불허 코믹 로맨스

‘편의점 샷별이’ 지창욱과 김유정의 골목길 첫 만남이 공개됐다.

오는 19일 처음 방송되는 SBS 새 금토드라마 ‘편의점 샷별이’(극본 손근주/연출 이명우)는 훈남 점장 최대현(지창욱 분)과 4차원 알바생 정샛별(김유정 분)이 편의점을 무대로 펼치는 24시간 예측불허 코믹 로맨스다. 여름과 잘 어울리는 톡톡 튀는 재미의 드라마를 예고, 시청자들의 설렘 지수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10일 공개된 ‘편의점 샷별이’의 스틸컷에는 지창욱과 김유정이 편의점이 아닌, 과거 다른 공간에서 마주한 모습이 포착

돼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편의점 점장과 알바생으로 마주하기 전,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첫 만남이 있었던 것.

공개된 사진 속 뒷골목에서 마주친 지창욱과 김유정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두 사람의 표정이 극과 극 대조를 이루고 있어 흥미를 유발한다.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김유정과 달리, 지창욱은 이러한 김유정의 감각 등장에 당황한 듯하다.

김유정의 당돌한 눈맞춤에 거리를 두는 지창욱의 모습이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

증을 치솟게 한다.

이날의 첫 만남으로 김유정은 지창욱에게 시한폭탄 같은 첫인상을 남기게 된다는 전언. 지창욱에게는 악연인 듯 인연인 듯 아리송한 기억을 남기게 될 두 사람의 과거 첫 만남은 과연 어땠을까. 그리고 이후 두 사람이 어떻게 편의점에서 다시 마주하게 될지, 벌써부터 끌립 캐미가 예고된 ‘편의점 샷별이’ 첫 방송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다.

‘편의점 샷별이’ 제작진은 “지창욱, 김유정이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터질 만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케미를 보여주고 있다”며 “첫 만남부터 범상치 않았던 대현-샛별의 인연이 편의점으로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편의점 샷별이’는 이날 오후 10시 처음 방송된다.



정승환,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티저 공개…싱그러운 여름 감성



가수 정승환이 청량한 음악을 기대하게 했다.

9일 안테나는 공식 SNS 채널

에 정승환의 새 싱글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1차 콘셉트 포토를 공개하며 청량한 매력으로 시

선을 끌었다.

첫 번째 콘셉트 포토에서는 마치 초여름 특유의 맑은 하늘을 연상케 하는 배경 속 정승환의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푸른 자연 한 가운데 있는 듯한 느낌과 함께 정승환표 여름 감성을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지금까지 ‘눈사람’, ‘그 거울’ 등 겨울 노래로 따뜻한 감성을 어루만졌던 정승환.

초여름의 중심에서는 어떤 감성과 메시지로 리스너들의 귀를 사로잡을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정승환은 최근 방영 중인 JTBC ‘비긴어게인 코리아’를 통해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어 지난해 ‘십이월 이십오일의 고백’ 이후 반년 만에 발표하는 새 싱글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발표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승환의 신곡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오는 17일 전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팝 대표 걸그룹’ 트와이스, 국내 앨범 판매량 520만 장 돌파

그룹 트와이스가 국내 앨범 판매량 520만장을 돌파하며 막강한 음반 파워를 뽐냈다.

9일 오후 국내에서 발매한 트와이스의 음반 누적 판매량이 520만 6745장(이하 가온차트 출고량 기준)을 기록했다.

지난 2015년 10월 발표한 데뷔 앨범 ‘더 스토리 비긴스’(THE STORY BIGINS)를 필두로 최근 작품인 ‘모어 앤드 모어’(MORE & MORE)까지 데뷔 4년 8개월 만에 국내 음반 총 판매량 520만장을 넘어서게 됐다.

이처럼 놀라운 성공을 거둔 트와이스는 지난 1일 공개한 새 앨범 ‘모어 앤드 모어’로 연일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당 앨범은 음반 차트 기준 일주일 동안의 음반 판매량을 의미) 33만 2416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그룹 자체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타이틀곡 ‘모어 앤드 모어’는

공개와 동시에 국내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 1위를 훨씬 넘고 벅스와 지니 뮤직 주간 차트(2020.06.01~2020.06.07) 정상에 올랐다.

트와이스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두며 ‘K팝 대표 걸그룹’의 위상을 자랑했다.

13일 자 미국 빌보드 ‘빌보드 200’ 200위를 비롯해 아티스트의

태진아, ‘고향가는 기차를 타고’ 컴백 무대 “파격 이상 기대”

신곡 활동 돌입…온 가족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태진아는 10일 오후 6시 방송되는 MBC 예브리원 ‘쇼! 챔피언’을 시작으로, 11일 Mnet ‘엠카운트다운’, 12일 KBS 2TV ‘뮤직뱅크’, 15일 TBN 교통방송 ‘박철의 빙방곡’, 20일 MBC ‘쇼 음악중심’, 21일 SBS ‘인기가요’, 22일 KBS 1TV ‘아침마당’에 출연해 ‘고향가는 기차를 타고’ 무대를

선보인다. ‘고향가는 기차를 타고’는 이루가 작사 작곡한 곡으로, 타향에서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명절날 고향에 모여 부모님과 오손도손 정겹게 지내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신나는 리듬과 따라 부르기 쉬운 가사로 온 가족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평가를 받

고 있다. 특히 태진아는 앞서 반향아 콘셉트의 사진을 공개한 만큼, 이번 신곡 무대에서 어떤 의상을 입고 등장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속사 진아엔터테인먼트 측은 “태진아는 이번 ‘고향가는 기차를 타고’ 무대를 통해 그간 보지 못했던 파격적인 의상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듣는 재미뿐만 아니라 무대를 보는 재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 마이 베이비’ 장나라와 고준, 사내 비밀 연애 시작

‘이상하리 커플’의 쌍방 로맨스 본격 점화



tvN 수목드라마 ‘오 마이 베이비’(극본 노선재/연출 남기훈) 측은 10일 서로의 마음을 쌍방 확인한 장나라(장나라 분)와 한이상(고준 분)의 사내 비밀 연애를 예고하는 스틸컷을 공개했다.

지난 방송에서 굳건하던 한이상

의 철벽이 장나라 앞에서 무너지면서 이상하리 커플의 쌍방 로맨스가 본격 점화됐다. 서로의 마음을 무장 해제시킨 키스의 강력한 힘 속에서 장나라와 한이상의 로맨스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증을 높인다.

‘오 마이 베이비’ 제작진은 “안방 1열 시청자의 설렘 지수를 높였던 이상하리 커플의 연애가 드디어 시작된다”며 “작장 선후배 모로게 비밀 사인을 주고받으면서도 재채기처럼 숨길 수 없는 이들의 열혈 사랑이 절제하게 비밀로 부쳐질지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오 마이 베이비’는 매주 수, 목요일 오후 10시50분 방송된다.